코로나가 일깨워준 자전거의 매력.

페달 밟으며 스위스 자연의 품속으로

로컬들의 도시 여행 법
천천히 페달 밟으며 만나는 도시의 진짜 얼굴
관광 명소뿐만 아니라, 나만의 스팟 찾기도
이 바이크의 도움받으면 힘들일 것 없어

코로나로 인해 자전거 타기 열풍이 불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자전거를 이동 수단으로 삼거나, 안전한 여가 활동 중 하나로 여기면서 대단한 바람이 불었다는 후문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 보도는 '이베이' 4 월 자전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 배나 많았고, 중고 자전거 거래도 23%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자전거 품귀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스위스는 이미 수년 전부터 자전거 여행자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고객층이라는 분석 하에, 스위스 모빌리티(SwitzerlandMobility)와 함께 자전거 관련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왔다. 스위스 모빌리티는 기차, 자동차 등과 같은 '동력'이 아닌, 오로지 인간의 힘으로만 여행 및 여가를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된 친환경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하이킹, 바이킹, 래프팅, 인라인 스케이팅, 카누로 스위스를 여행할 수 있다. 특히 스위스 전역에는 잘 설계된 자전거 루트가 펼쳐져 있다. 일반 자전거는 물론, 산악자전거 코스도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 즐겨볼 만하다.

특히, 스위스 도시에 사는 로컬들은 햇살이 따사로워지는 3 월부터 자전거를 정비하느라 분주하다. 카페와 레스토랑은 노천 테이블을 내놓고, 10 월 중순까지 햇살을 즐기려는 사람들을 맞으며 생기발랄한 도시의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스위스 도시를 여행하는 방법 중 자전거는 로컬들도 즐기는 트렌디한 것이다. 두 바퀴에 올라 더 멀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로컬처럼 스위스 도시를 즐겨볼 수 있는 매력적인 자전거 여행법을 소개한다.

1. 이 바이크로 진짜 취리히(Zürich) 만나기
취리히는 관광 명소를 벗어난 곳에서 그 진면목을 만날 수 있다. 가이드 투어나 솔로 바이크 투어에서 하루를 온전히 들여 취리히 주변부를 탐험해 보면서 진짜 취리히를 발견해 볼 수 있다. 하이 퍼포먼스 EGO 무브먼트 이 바이크로 취리히 주변부의 다채로운 풍경을 여행해 볼 수 있다. 특히 취리히에는 도시에서 무척 가까운 곳에 대단한 자연이 펼쳐져 있다. 진짜 취리히 로컬들은 이렇게 레저 활동을 한다. 자전거길에 이정표 설치가 잘 되어 있어 길 잃을 염려도 없다. 가이드 투어에도 참가할 수 있는데, 그림 같은 주변 마을을 찾아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2. 루체른(Luzern)의 자전거 고속도로, 벨로베그(Veloweg)
루체른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벨로베그가 있는데, 루체른에서 시작해 필라투스(Pilatus) 케이블카 역이 있는 크리엔스(Kriens)까지 이어진다. 이 투어의 특별한 점은 이 자전거 전용 도로가 과거에 중앙 철로의 한 구간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2km 의 '문화 도로'로 루체른의 주거지를 관통하며 자전거로 아름다운 루체른 시내와 외곽의 풍경을 둘러볼 수 있다.

3. 이 바이크로 로르샤흐(Rorschach) 지역 탐험
보덴제(Bodensee) 지역의 다채로운 풍경을 탐험하는데 이 바이크만한 방법이 없다. 어여쁜 작은 마을, 그림 같은 풍경, 대단한 자연을 따라 자전거 루트가 펼쳐진다. 투어는 보덴제의 항구 마을,

로르샤흐에서 시작하는데, 뷔어트 하우스 로르샤흐(Würth Haus Rorschach)를 지나, 생갈렌-알텐라인(Gallen–Altenrhein) 공항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나면 알터 라인(Alter Rhein) 강을 따라가다가, 알텐라인(Altenrhein) 자연 보호 구역을 통과해, 탈(Thal) 마을로 이어진다. 다음으로 여유로운 포도밭 구간이 이어지다가 로르샤허베르크(Rorschacherberg)로 향하는 오르막이 나온다. 로르샤허베르크 위에서는 보덴제의 굉장한 파노라마가 펼쳐지는데, 그동안의 노고를 보상해 주고도 남는다. 다시 보덴제 호숫가로 내려오면 로르샤흐 마을의 두 가지 볼거리가 나타난다. 바로, 오두막이 있는 수영장과 옛 곡물 저장고다. 이 바이크 투어는 자연과 문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진귀한 체험이 되어주며, 보덴제 지역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준다.

4. 베른(Bern) 구시가지 자전거 투어
베른에서는 무료로 자전거, 이 바이크, 스쿠터, 스케이트보드를 대여할 수 있는 '베른 롤트(Bern rolt)'라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여권과 보증금 CHF 20 을 맡기면 원하는 것을 무료로 4 시간 동안 대여할 수 있다. 추가되는 시간을 이용할 경우 시간당 CHF 1 를 지불해야 한다. 총 5 일까지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베른의 밀크갸슬리(Milchgässli), 히르셴그라벤(Hirschengraben), 초이그하우스가쎄(Zeughausgasse)에 베른 롤트 대여소가 마련되어 있다. 단, 5 월부터 10 월까지만 운영한다.

5. 이 바이크로 바젤(Basel) 탐험
라인(Rhine) 강가의 도시는 자전거로 돌아보기 완벽하다. 전기 자전거로 힘들이지 않고, 바젤의 볼거리를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다. 바젤의 스위스 기차역에 있는 렌트 어 바이크(Rent a Bike)에서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는데, 편리하게 자전거로 시티 투어를 할 수 있다. 바젤의 세계적인 박물관, 대성당, 팅겔리(Tinguely) 분수, 비르스(Birs) 강가의 초록을 자전거로 둘러볼 수 있다.
바젤에서 숙박을 하는 여행자라면 바젤카드(BaselCard)를 이용해 CHF 20 면 하룻동안 이 바이크를 빌릴 수 있다.

6. 제네바(Geneva)의 포도밭 투어
제네바의 아름다운 포도밭을 편안한 이 바이크로 둘러볼 수 있다. 당연히 와인 시음이 포함된다. 제네바 근교의 포도밭을 가이드와 함께 이 바이크로 둘러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종류의 와인을 맛볼 수 있다. 와인 애호가들도 만족시킬만한 시음 코스가 마련되어 있다. 스포츠 및 자연을 추구하는 여행자도 마찬가지로 이 투어에 매료될 것이다. 제네바 지역에 열정을 가진 전문 가이드가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놓기도 한다.

7. 로카르노(Locarno) 자전거 투어
슬로우 트래블이란 발견을 위한 여행을 뜻할 수 있다. 로카르노 마을을 둘러보는 완벽한 방법이 자전거인 이유다. 어디를 가든, 로카르노 곳곳에서는 공유 자전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 다음 손님을 태우고 마을로 향하기 기다리는 자전거가 줄지어 있다. 자전거를 빌려 로카르노를 탐색한 뒤, 여정을 마무리하는 곳에서 자전거를 반환할 수 있다. 스위스 남국의 정취 가득한 로카르노에서 자전거는 더욱 낭만적이다. 명소에서 다음 명소로 자전거로 이동하며 중간에 숨겨져 있는 자기만의 명소도 찾아내 볼 수 있다. 자기만의 속도로 말이다. 구시가지의 좁은 골목을 페달로 돌아나가, 호숫가를 따라 여유로운 라이딩을 즐기다가, 주변 계곡으로 탐험 여행을 떠나보아도 좋다. 등록하고, 자전거를 타고, 출발하면 된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